

“시민中心 행정을 시정기조로 삼을 것”

시장원 제3대 포천시장 취임식서 밝혀
 현안사업 추진 김영우 국회의원과 협력



5일 오전 10시 신임 시장원 취임식(사진 좌)이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5일 오전 10시 신임 시장원 취임식(사진 좌)이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시장원 신임시장은 흠뻑 젖은 민심을 회복해 포천시민이 화합하는 데 주력하고 규제 해제를 통해 포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룩해나간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백지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장원 포천시장은 취임사에서 “오랜 기간 각계각층의 시민과 합

께 하면서 포천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소신을 가진 시장을 원하는지 익히 알고 있었다”면서 “시장이 가진 모든 권한은 포천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천을 통해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또 “시민중심의 정치, 시민중심의 자치, 시민중심의 행정을 시정기조로 삼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영우 국회의원과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중앙부처 협의사업 등 현안들을 풀어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회동을 정례화 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또한 “현재 포천시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흠뻑 젖은 민심을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잡은 선거로 양분되고 흐트러진 민심을 추슬러 포천시민이 다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시장은 포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은 시장이지고 권한을 실무자에게 주어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하겠다”면서 “작시 적소에 해당분야 전문공무원을 배치해 빠른 판단과 빠른 조치, 빠른 지원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 가장 뛰어난 리더쉽에 대해서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

음과 많은 말들 중에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가려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은 실천을 위해, 빈틈없는 시스템을 구축할 줄 아는 지혜”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일방적인 독선은 자칫 시민의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7대 포천시 추진사업과 6대 중앙부처 협의사업, 2대 지역현안인 한탄강 댐 건설과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가능성이 없는 사항은 백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

제3대 시장원 포천시장 취임사

“市政 시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할 것”

7대 프로젝트 사업 꼼꼼히 따져 추진여부 결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공무원 여러분!

저는 6월 4일 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3대 포천시장의 중책을 맡아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런 우리고장 포천을 위해 헌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시의 주인이신 16만 시민여러분께 당선사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의 취임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내부부장관을 역임하신 오치성 전 장관님, 이강림 시의회의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전직 도의원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각종 사회단체 임원님, 지역유지인사님, 저의 선거에 도움을 주신 동지 및 선우배·친구·친지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등 내빈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국 후쿠오카시의 오자와 히로시 의장님께서 직접 축하사절단을 이끌고 왕립해 주셔서 정말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다른 후보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포천시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흠뻑 젖은 민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잡은 선거로 양분되고 흐트러진 민심을 추슬러 포천시민 여러분이 다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천시의 각계 지도자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포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책임은 시장이 지고 권한은 실무자에게 주어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시 적소에 해당분야 전문공무원을 배치해, 빠른 판단과, 빠른 조치, 빠른 지원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분야의 전문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가장 뛰어난 리더십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과, 많은 말들 중에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가려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의 실천을 위해, 빈틈없는 시스템을 구축 할 줄 아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일반적인 독선은 자칫 시민의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무원 여러분!

변화는 작은 것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던 대로 가지도 않겠습니다.

평소 본인이 생각했던 시민중심 주민자치 시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포천시민이 파부로 느끼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포천시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성실성 도덕성 높인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강화

포천시는 공직사회 내 법규 준수 및 성실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4일 부터 시행한다.

이번 ‘포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 및 빈도가 높은 직무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

정 개별기준을 새로이 마련해 문책 기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마련했으며, 공무원 성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해 강화된 징계양정을 적용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성폭력을 징계 감경적용 제외대상 비위에 새로이

포함시켰다.

또한, 그동안 내부결재로 운영하던 직무의 형사입건 문책기준도 4일부터 기준을 강화해 ‘포천시 직무의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지침’(포천시 예규)으로 제정 시행한다.

새롭게 제정한 예규에 따르면 읍·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면허정지(1회)의 경우 기존 ‘훈계

에서 ‘경징계’로 강화됨에 따라 면허취소(1회)의 경우 형평성을 감안할 때 ‘감봉’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취소 3회에서는 해임 조치된다.

이 밖에 교통사고, 폭력행위 범죄, 성범죄, 사행성 범죄, 반사회적 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처분 결과에 따른 유형별 문책기준을 세분화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6.4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3대 포천시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시행되는 이 두 가지의 징계·처벌 기준이 포천시 공직자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

6월, 바닷길 열리는 화성 전곡항에서 만나요!

보르소 & 오트대히

경기국제 코리아매치컵 세계

세계 유명보트와 오토가 한자리에! 세계 최정수급 선수들의 오토레이싱! 갯벌조개잡이, 해안관광열차, 오토체력, 화려한 개막쇼와 불꽃놀이까지!

6월 11일 ~ 15일 /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